

맹세하지 말라

Do Not Swear

마태복음 5:33-3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0월 30일 설교

³³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³⁴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³⁵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³⁶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회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³⁷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뱀은 거짓의 원조

인류의 첫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삼장을 보면 시작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뱀이 던진 질문에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내용이 엉터리입니다. 울 봄에 살팍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끼워 넣기도 하고 (뭐지요? “만지지도 말라” 한 거지요.) 하나님이 힘주어 하신 말씀을 에누리해 말하고 (“정녕 죽으리라” 하신 걸 “죽을까 하노라” 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무 이름도 내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로).

자, 세상에 좋은 것만 있던 시절입니다. 죄는 아직 안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하고 닮게 만드셔서 말을 통해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사람끼리도 대화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 말을 보니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된 바벨탑 사건이 나기도 한참 전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을 통해 들었다 해도 죄가 없는 세상이라면 의사소통에 아무 장애가 없었을 거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여자가 한 말을 보면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과장하고 축소하고 왜곡한 걸 보면 지금 우리가 말을 주고받을 때 많이 저지르는 잘못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자가 이미 물이 들었습니다. 거짓에 물이 들었습니다. 무슨 거짓입니까? 뱀이 한 거짓말입니다. 사실 거짓말은 서술입니다. 무엇이다 또는 아니다 해야 되는데 뱀은 묻기만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뱀이 간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하시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여자한테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게 정말이냐?” 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거짓은 뱀의 태도입니다. 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르고 있는 듯, 엉터리로 알고 있는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 뒤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고 분명한 거짓말도 합니다만 그 전에 이미, 입을 열자마자 한 첫 마디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뱀은 정말 거짓의 원조입니다 (요 8:44).

거짓이 가져온 혼란

세상에 참만 있다면 모든 게 간단할 겁니다. 그런데 거짓이 들어와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내 말은 참말이다” 한다면 괜 찰습니다. 말도 참말이고 그 말이 참말이라 한 말도 참말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거짓말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헛갈리지요. 이 말이 참말이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 아니니 참말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말이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면 참말입니다.

거짓말이 됩니까? 일단 사실과 다른 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혹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하고 다른 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의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든 보기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쟁이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사자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없습니다. 저기 나하고 친한 사람이 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사자가 있다 말해주니까 오른쪽에 있는 줄 알고 왼쪽으로 가 살았습니다. 걸으로는 거짓말을 했지만 내 말이 거짓인 줄 알 것을 예상하고 말한 거니까 속으로는 참말을 한 겁니다. 조금 뒤 내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사자가 있다고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을 안 믿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물려 죽었습니다. 걸으로 참말을 했지만 속에서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경우 어느 게 참말이고 어느 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의도입니까? 어렵지요. 왜 이리 복잡합니까? 거짓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한 말은 여러 차원에서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신 건 우선 사실과 다르지요. 거짓말입니다. 또 내가 바로 알고 있으면서 엉터리로 말했으니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거짓을 말한 의도가 사람을 속여 죄에 빠뜨리려는 나쁜 것이었으니 정말 거짓말입니다. 뱀은 모든 면에서 거짓의 원조가 분명합니다.

거짓이 덮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하고 닮았습니다. 지정을 갖춘 인격이라는 점에서 닮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닮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자유를 가졌다는 점에서도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자주 말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동물을 비롯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일수록 타락하면 더 더러워집니다. 물건도 높은 데 있을수록 떨어지면 더 심하게 깨지지 않습니까? 남들 안 올라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남들 안 당하는 망신도 당합니다. 가인의 영광은 인류 최초로 배꼽을 가진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인이 사람을 죽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영광이 큰 만큼 오명도 커졌습니다. 사람만이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렸습니다. 거짓의 독이 우리 속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꿈도 못 꾸는 나쁜 짓을 우리 사람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의 원조 뱀에게 물리면서 우리 말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능력은 처음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에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재주로 타락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시킵니다. 죄와 거짓으로 물든 마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어느 것이 참인지 생각하기보다 뭐가 나한테 좋을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든 말든 나한테는 유익이 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인 곳이면서 동시에 거짓말쟁이가 모인 세상,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맹세가 필요한 세상

세상이 거짓으로 덮였지만 거짓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애야, 밥 먹어라” 하시는데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고민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편이 출근하면서 “여보,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는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정말 집에 올 건지 믿을 수 없다면 같이 못 살겠지요. 조금 전 제가 일광절약시간이 다음 주에 해제된다 알려드렸는데 제 말도 못 믿고 텔레비전 뉴스도 못 믿으면 교회에는 몇 시에 오겠습니까? 거짓이 아무리 판을 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바탕은 진실이고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맹세라는 겁니다. 맹세는 말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말에다가 말 아닌 것을 덧붙여서 내 말이 참되다는 걸 보이려는 게 맹세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나마 참된 것을 지켜보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 하면 안 믿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다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걸 걸고 맹세를 합니다. 많이 거는 게 부모님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런 말들 하지요. 무슨 뜻인지 혹 아십니까? 성은 주로 아버지 성을 따르니까 성을 간다는 말은 지금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정절을 걸고 내 말이 맞다는 걸 주장하는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부모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지요. 신앙의 대상을 걸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저주의 뜻도 담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요. 내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실 텐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칼뱅, 기독교 강요, II, viii, 24).

제대로 맹세해라?

거짓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참된 것을 드러내 강조하려고 생긴 것이 맹세니까 맹세를 하려면 제대로 잘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엉터리 맹세를 하지 말고, 둘째, 일단 맹세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아홉째 계명과 (출 20:16; 신 5:20)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셋째 계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출 20:7; 레 19:12. 칼뱅, 강요 II, viii, 22) 입 밖에 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도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참고 민 30:2, 신명기 23:21; 시편 50:14; 66:13,14).

구약성경에는 맹세를 해도 된다는 말뿐만 아니라 맹세를 하라는 명령도 많습니다 (출 22:10-11; 신 6:13; 10:20).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삼상 14:44; 왕하 6:31).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됩니까? 거짓을 극복하기 위해 맹세를 하는데 맹세하는 내가 여전히 거짓된 사람이다 보니 엉터리로

맹세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연구해 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맹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등을 걸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한 다리 건너 하는 방법이니까 혹 맹세한 게 거짓으로 드러나도 하나님 이름은 더럽히지 않을 거고 저주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겔 16:59; 속 8:17).

예수님 당시에는 또 그리스와 로마에서 흘러 들어온 방식대로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사람만 알지 하나님은 모릅니다. 제우스나 아폴로니 해서 신이라 부르는 대상이 많지만 사실 그리스 로마의 신은 사람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도 사람 특히 말하는 자신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런 맹세를 종종 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유행하던 맹세의 유형을 하나하나 비판하시면서 맹세라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요, 땅은 하나님이 발을 얹어 놓으시는 발등상이라 하시는데 (사 66:1) 이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루살렘도 큰 임금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시 48:2). 그러니 뭘 걸고 맹세해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걸고 하는 맹세는 왜 안 됩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일부이니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사람의 경우는 자기 맹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내 말의 권위를 조금도 세워줄 수 없을 정도로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제 머리카락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무능력한 사람 주제에 어떻게 자신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금 도끼를 나무뿌리에 갖다 대십니다. 문제는 맹세의 원리나 방법이 아니고 맹세 그 자체, 맹세를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맹세를 안 하면 안 믿어주는 세상, 맹세를 안 하면 신뢰받지 못하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결국 저 아래 뿌리에 놓인 죄, 거짓 그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맹세는 거짓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만든 거짓만 해결은커녕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걸 이기려고 맹세라는 걸 하는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다시 말해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짓말쟁이인데, 그렇다 하는 거랑, 정말 그렇다 하는 거랑, 정말이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짓을 이겨 보려고 맹세를 하는데 오히려 맹세 때문에 거짓이 더 많아집니다 (K. Barth, *Church Dogmatics*, II, 2, 691). 세상은 오늘도 거짓만큼 맹세도 많아지고 맹세하면 거짓이 그만큼 또 많아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맹세의 문제는 곧 말의 문제고 말 속에 담긴 거짓의 문제고 그 거짓을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짓된 마음을 고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셨습니다. 원문은 “그래, 그래, 아니, 아니”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그런 건 그렇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는 말입니다. 참말만 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만 말하고 끝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악으로 좇아 난다” 하십니다. 악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인데 악이라기보다 “악한 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마 13:19처럼). 옛 뱀,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권위를 빌어 강조하려 하는 건 마귀한테서 나온 거라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내가 믿음을 사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게 거짓 때문이요 그 모든 건 결국 거짓의 원조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은 마귀의 전유물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다. 뱀이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속여 죄 짓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일 2:22).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오늘도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목표는 하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로 우리를 꾀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 것이요 마귀는 거짓을 이용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런 거짓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의 뜻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 5:12 말씀도 맹세하지 않아야 죄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법정에서 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증인이 되었는데 그럴 때도 맹세는 거부해야 합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맹세라는 행위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뭔지 모른 채 위선적인 가르침을 준 랍비들을 꾸중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가려야 할 때가 있음을 또한 아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참뜻은 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도 하나님을 결코 맹세를 했습니다 (롬 1:9; 고후 1:23).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가 법정에서나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말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도 만드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뜻은 그 자유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믿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심입니다.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다고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가볍게 던지는 한 마디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가리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이렇게 무거운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런 처지에 어떻게 감히 하늘이나 땅을 들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로 내 말을 믿게 만들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 없이 내뱉은 말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저주를 부르기까지 하는 맹세를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약한 줄 알 때 우리는 맹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 자체를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고 그 허물 가운데 단연 으뜸가는 것은 말의 허물입니다 (약 3:2).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는 사람은 감히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때로 내가 모를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면서 떨면서 한 마디 입을 여는 사람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이 마귀의 것이듯 참된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맹세라는 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바른 것을 말할 때 그런 세상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은 참되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말도 참되게 하고 삶도 바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보증수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창한 꿈까지는 못 꾀다 해도 그저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려고 애는 써야 되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맞는 말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거짓말이라고 내 마음이 고발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이고, 말을 하는 내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늘 확인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맹세가 우리 가운데 끼친 해악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영망이 된 우리 삶이 맹세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혼란해졌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과장하고 빼먹고 왜곡합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남이 너무 심각하게 듣거나 내가 심각하게 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모든 문제는 죄에 있다는 걸 알고 서로 신뢰감을 잃지 말고 서로 용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분명하게 할 건 분명하게 하고 웃어넘길 건 웃어넘겨야 되겠지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나는 조심하고 이웃은 널리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에덴동산에서도 언어는 혼란했습니다. 지금 세상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마귀가 거짓을 이용해 우리를 속이고 싸우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늘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는 너무 조심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조심도 하지만 마음은 좀 편하게 갖고 혹 실수하면 서로 용서하고 또 너무 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엡 4:25). 한 몸이니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말만 연습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요. 인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맹세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 오신 주 예수를 믿으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거짓을 이기고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께 감사하며 맹세하지 않은 삶, 맹세가 필요 없는 인격, 맹세를 요구하지도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다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